

# ㄹ 계열 유음의 한중 대조분석과 CSL 교수·학습에의 적용

장호득\*

## 目 录

1. 머리말
2. 한국어의 ㄹ 계열 유음 분석
3. 중국어의 ㄹ 계열 유음 분석
4. ㄹ 계열 유음의 한중 대조분석과  
CSL 교수·학습에의 적용
5. 결론

## 1. 머리말

본고의 연구 목적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유음을 대조 분석하여 그 음운론적 특징을 규명하고, 이를 한국인의 CSL(Chinese as a Second Language) 교수·학습에 대한 적용 원칙을 제시하는 데 있다.

김진우(1985: 66)는 유음(流音, liquids)을 소리의 청각적 인상이 유동체(流動體)와 같다는 데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하면서 ㄹ 계의 소리들이 여기 속한다고 하였다. 그는 이 유음을 다시 설측음(舌側音, lateral), 굴림소리(전동음, 顫動音, trill), 혀침소리(경타음, 輕打音, tap), 날름소리(탄설음, 彈舌音, flap)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sup>1)</sup>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한국어의 유음은 한글 ‘ㄹ’

\* 檀國大學校 文科大學 中語中文學科 教授

좋은 의견을 주신 익명의 세 분 심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 이것은 유음을 조음 위치(place of articulation)보다는 조음 방식(manner of

로 표기되는 음을 말하며, 중국어에서는 한어병음으로 ‘r’, ‘l’로 표기되는 음을 말한다. 그러나 이들은 조음자리와 조음방법 등에서 유사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많이 나타나며 이런 점은 한국인이 중국어 발음을 정확하게, 더 나아가서는 유창하게 하는 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이런 차이점을 음성학적 견지에서 규명하여 효율적인 CSL 교수·학습에의 적용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본고는 음소를 위주로 분석하는 간략 전사(broad transcription)보다는 음소를 기초로 하여 변이음(allophone)의 음성적 차이까지 정밀하게 분석하는 정밀 전사(narrow transcription)를 통해 두 언어 사이의 조음 차이를 대조 분석하고자 한다.<sup>2)</sup>

말소리의 표기는 일반적으로 간략 전사와 정밀 전사로 나뉜다. 간략 전사는 음소 전사(phonemic transcription)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의 음소를 하나의 문자로 표기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음소 전사는 빗금 ‘/ /’ 안에 넣어 표기하므로 본고에서도 이를 따른다. 반면 정밀전사(narrow transcription)는 언어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달리 발음되는 하나하나의 변이음을 각각의 음성 문자로 표기하는 방법으로 음성 전사(phonetic transcription)라고도 한다. 음성 전사는 일반적으로 대괄호 ‘[ ]’ 안에 넣어 표기하므로 본고도 이를 따르고 필요에 따라서는 ‘구별 부호(diacritics)’를 사용하겠다.

## 2. 한국어의 ㄹ 계열 유음 분석

한국어의 유음은 /ㄹ/ 하나로 표기되는데, 이것은 한국어의 유음 음소가 하나밖에 없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정밀하게 분석해보면 실제로 조음 방법, 언어 환경 등에 따라 몇 가지 변이음으로 나타난다.

articulation)을 중심으로 분류하면서 나온 명칭으로, 조음 위치를 기준으로 삼으면 유음에 속하는 음운은 기본적으로 치경음(齒莖音, alveolar)이다. 치경음은 윗니 뒤쪽에 혀끝(舌端, tongue blade)을 대고 내는 소리로 /t, d, n, s, z, l, r/ 등이 있다.

2) 말소리는 음절에서부터 음운, 음소, 운소, 음성, 변이음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정밀 전사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어 유음은 발음 방식에 따라 [r]계 경타음과 [l]계 설측음으로 나눌 수 있다. [r]계 경타음은 혀끝으로 잇몸을 가볍게 한 번 쳐서 내는 혀침소리이며, [l]계 설측음은 여린입천장을 상승시켜 비강 통로를 차단한 후 혀끝으로 구강의 위쪽 가운데를 막고 혀의 양 옆 공간을 만들어 폐로부터 나오는 기류를 혀의 양 옆으로 나오게 하는 혀옆소리이다. 이 두 소리는 많은 언어에서 변별적이지만 한국어에서는 비변별적이다. 이호영(1996:89)도 “국어에는 유음이 /ㄹ/ 하나밖에 없는데, /ㄹ/은 환경에 따라 [r]계 탄설음<sup>3)</sup>으로 발음되기도 하고 [l]계 설측음으로 발음되기도 한다.”고 하여 한국어의 유음 /ㄹ/을 크게 경타음과 설측음 두 부류의 변이음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두 부류의 변이음은 소리가 나는 환경에 따라 다시 여러 변이음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언어 환경에 따라 다르게 출현하는 [r]계 경타음의 다양한 변이음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호영(1996:89)은 [r]계 경타음이 나타나는 환경을 ‘모음과 모음 사이’, ‘모음과 반모음 사이’, ‘모음과 /ㅎ/ 사이’, ‘외래어의 어두’ 네 가지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구분하면서 예를 제시하고 있다.

(1) [r]계 경타음이 나타나는 환경

- ㄱ. 모음과 모음 사이: 나라[nara], 우리[uri]
- ㄴ. 모음과 반모음 사이: 노력[norjak<sup>7</sup>], 우뢰[u : rwe]
- ㄷ. 모음과 /ㅎ/ 사이: 실현[eir<sup>h</sup>jan]/[eirjan]
- ㄹ. 외래어의 어두에서: 라디오[radio]/[ladio], 라면[ramjan]/[lamjan]<sup>4)</sup>

위의 분류에서 보면 (1) ㄱ-ㄷ은 [r]이 [r], [l] 등과 같은 다른 IPA로 실현되

3) 이호영은 우리말의 /ㄹ/ 음소 가운데 하나를 ‘[r]계 탄설음’으로 부르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r]계 경타음(Tap)’으로 사용하겠다. 본고에서는 ‘Tap’을 ‘경타음’으로, ‘Flap’을 ‘탄설음’으로 본다. ‘Tap’과 ‘Flap’을 구분하면 전자는 혀를 한 번 가볍게 치는 것이고, 후자는 혀를 여러 번 치는 소리이므로 한국어의 이 계통 소리는 전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직접 인용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경타음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4) [ladio]와 [lamjan]은 필자가 추가한 정밀 전사이다.

는 것이 아니라 IPA 자음으로는 하나의 [r]이라는 음성부호로 표기되고 있다. 언어 환경에 소리의 차이는 단지 구별 부호(diacritics)로 표시될 정도로 미미한 것이다. ‘실현’이 개인적 차이나 발음의 속도 등에 따라 [ciɾʰjʌn]이나 [ciɾjʌn]으로 발음될 수 있듯이, 노력[norʰʌkʰ]과 우레[u : rwe]도 환경에 따라 [norʰʌkʰ]와 [u : rwe], [u : re] 등으로 표기될 수 있다. 이호영(1996:90)도 이런 측면에서 언어 환경을 더 세분화하여 이런 발음을 아래와 같이 전사하고 있다.

(2) [r]계 경타음의 변이음들

[rʰ]: ㄹ, j 앞에서

소리[sorʰi], 세련미[se : rʰʌnmi], 사례[sa : rʰje]

[rʷ]: ㄷ, ㄱ, ㄴ, w 앞에서

노루[nʷo : rʷu], 여론[jə : rʷon], 아뢰다[arʷøda], 우뢰[u : rʷwe]

[rʰ]: ㄹ 앞에서

무료[murʰʷo], 서류[sʌrʰʷu]

[r]: 그 밖의 다른 모음 앞에서

카레[kʰare], 나래[nare], 나라[nara], 러시아[rʌcia]

[rʰ]: 유성음 사이에서 유성음화된 ㅎ과 융합하여

실현[ciɾʰjʌn], 결혼[ɡjʌrʰon]

위의 예에서 소리가 나는 환경과 그에 따른 [r]의 변이음을 보면, 전설 고모음 /i/나 경구개 반모음 /j/ 앞에서 구개음화되어 [rʰ]로 발음되고, 원순 모음 /ɪ, ɨ, ɯ/나 양순 여린입천장 반모음 /w/ 앞에서는 원순음화되어 [rʷ]로 발음되며, 양순 경구개 반모음 [u] 앞에서는 구개음화되고 원순음화되어 [rʰ]로 발음된다. 경타음은 /ㅎ/ 앞에서 /ㅎ/과 융합하여 유성 유기음 [rʰ]로 발음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변이음은 변이음이지만 [r]은 변하지 않고 단지 [rʰ], [rʷ], [rʰ], [rʰ] 등 구별 부호만 추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이음의 이런 전사는 본고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 결과에서 볼 때 유의미하지 않은 분

석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정밀 전사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이차 조음에 따라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부류의 음성 분석을 하지 않고 IPA 부호의 자음으로 달리 표기될 수 있는 변이음 분석으로 그 대상을 제한하고자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1) ㄹ은 본 연구에 상당히 유의미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서구어와 같은 외래어에는 이것이 적용되지만 한자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한국어에서 순우리말과 외래어인 한자어는 두음법칙을 적용받지만, 근현대 서구어에서 온 외래어는 이런 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sup>5)</sup> 이것이 한글 표기법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변이음도 달리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螺’는 언어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다르게 구현된다. ‘螺線’은 ‘나선[nasan]’으로 표기되지만, ‘海螺’는 ‘해라[hera]’로 표기되어, 하나는 ‘나[na]’로 다른 하나는 ‘라[ra]’로 실현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서구어에서 온 외래어의 초두 자음이 [r]과 [l] 두 가지로 모두 실현된다는 사실이다. 물론 대부분의 화자는 [r]로 발음하지만 개인적인 차이 등의 변수에 의해 [l]로 발음되기도 한다. 이 점은 뒤에서 분석하게 될 한중 대조분석과 교수 방안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다음으로, [l]계 설측음의 언어 환경에 따른 다양한 변이음을 살펴보도록 하자.

본고의 관점에서 볼 때 앞에서 분석한 [r]계 경타음이 하나의 변이음만 있는데 반해, [l]계 설측음의 변이음은 [l], [ʎ], [ʎ] 등 몇 가지로 나타난다.

이호영(1996:90)은 [l]계 설측음이 나타나는 언어 환경을 [r]계 경타음이 나타나지 않는 환경, 즉 어말이나 자음 앞, 설측음 다음, 그리고 느리고 신중

5) 이호영(1996:89)은 “/ㄹ/은 고유어의 어두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외래어의 어두에는 나타나며, 외래어의 어두에 나타나는 /ㄹ/은 개인의 발음 습관에 따라 탄설음으로 발음되기도 하고 설측음으로 발음되기도 한다.”고 하였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고유어 외에 한자어의 어두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즉, 외래어 가운데 서구어 어두에만 나타나고 한자어 어두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 유럽어에서 온 외래어들도 오래된 외래어나 초기 외래어 수용 때에는 남포(←lampo), 나디오(←radio)처럼 두음법칙에 의해 변음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문화어에서는 두음법칙을 무시하고 어두에서도 ㄹ 소리를 적고 그대로 발음한다.

한 말씨의 /ㅎ/ 앞 등으로 나누어 아래와 같은 예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또 외래어의 어두에 나타나는 /ㄹ/은 개인에 따라 설측음으로 발음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3) [l]계 설측음이 나타나는 환경

- ㄱ.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살[sal], 발달[balt̚al]
- ㄴ. 설측음 다음에서: 발로[ballo], 발랄[ballal]
- ㄷ. /ㅎ/ 앞에서 수의적으로: 결혼[ɡjɔlhon](느리고 신중한 말씨)
- ㄹ. 외래어의 어두에서: 라디오[ladio], 라면[lamjan]

그러나 본고의 분석 취지에서 볼 때 (3)의 ㄷ은 (3)의 ㄱ으로 통합할 수 있다. 즉, ‘결혼’의 ‘ㄹ’이 자음 ‘ㅎ’ 앞에 나타나면서 동시에 ‘결’의 음절 끝에 나타나므로 (3)의 ㄱ이 동시에 충족되고 있는 언어 환경이다. (3)의 ㄴ도 (3)의 ㄱ이 동시에 충족되고 있지만, 뒤에 ‘l’계열 모음이 오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3) ㄹ은 앞의 [r]계 경타음 분석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본고의 분석에 유의미한 언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외래어의 어두에서 ‘ㄹ’이 [l]로 발음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이지 않으며, 한국인에게 있어서 어두에 오는 ‘ㄹ’의 무표적인(unmarked) 발음은 [r]이라고 할 수 있다.

(3) ㄱ의 살[sal], 발달[balt̚al], (3) ㄴ의 발랄[ballal]은 각각 [sal], [balt̚al], [ballal]로도 발음될 수 있다. 즉 뒤에 음절이 이어지지 않고 음절 끝에 나타나는 ‘ㄹ’은 개인에 따라 [l]로 발음될 수도 있다.

그 외에 달력[ta : lɨjɔk̚]/[ta : ɫɨjɔk̚]에서 보듯이 뒤에 오는 전설모음의 영향을 받아 구개음화된 경우 [lɨ]로 전사되기도 하지만 [ɫ]로 전사되기도 한다. 이 경우 ‘달력’은 ‘달리’[ta : lɨ]와 미세한 차이가 있으므로 ‘달력’의 ‘ㄹ’은 이차조음이 없는 [ɫ]으로, ‘달리’의 ‘ㄹ’은 이차조음으로 된 [lɨ]로 전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 본고의 관점이다.

이호영(1996:93)은 [l]계 설측음의 주요 변이음을 더 상세하게 다루면서 아래와 같이 언어 환경을 나누고 그에 따른 예를 제시하고 있다.

(4) [l]계 설측음의 주요 변이음

[lʲ]/[ɭ]: ㄹ, j, ㅈ, ㅊ, ㅉ 앞에서

살림[salʲim]/[saɭim], 탄력[tʰa : ʲɪjɿk ˀ]/[tʰa : ɿɿk ˀ], 낱짜[nalʲtɕ=a]/[naɿtɕ=a]

[lʷ]: ㅓ, ㅕ, ㅖ, w 앞에서

만루[ma : ʷu], 난로[na : ʷo], 신뢰감[ci : ʷoŋam], 신뢰[ci : ʷwe]

[lʷʰ]/[ɭʷʰ]: ㅍ 앞에서

연료[jɿʷʰo]/[jɿɿʷʰo], 난류[na : ʷʰu]/[na : ɿʷʰu]

[l]: 그 밖의 다른 모음 앞에서

설레다[salleda], 빨래[pʰallɛ], 신라[ciɿla], 놀러[nu : ʷɿ], 선릉[salluŋ]

\* 치조 설측음은 개인에 따라 치음 [ʎ]로 발음되기도 한다.

위의 예를 통해 보면, 구개음화된 설측음은 개인에 따라 [lʲ]로 발음되기도 하고 [ɭ]로 발음되기도 한다. 그러나 같은 화자라 할지라도 말의 속도와 기분, 상태에 따라 [lʲ], [ɭ]로 발음하기도 한다. 전자는 느리고 또박또박하게 하면서 신중하게 발음할 때 나타나고, 후자는 빨리 그리고 부드럽게 발음할 때 나타난다. 그렇지만 더 정밀하게 전사하면, ‘살림’의 ‘ㄹ’은 [lʲ]로, ‘탄력’의 ‘ㄹ’은 [ɭ]로, ‘낱짜’의 ‘ㄹ’은 [lʲ] 또는 [lʲ]로 표기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다.

[lʲ]은 혀끝을 윗잇몸이나 윗니에 대고 혀의 앞부분을 셴입천장 쪽으로 접근시켜 내는 소리이고, [ɭ]은 혀끝을 아래 잇몸에 대고 혀의 앞부분을 상승시켜 셴입천장에 충분히 대고 내는 소리이다.<sup>6)</sup> 그 외에도 [l]계 설측음은 원순

6) 이호영(1996:93)은 [lʲ]을 전설이 경구개에 접근하는 이차조음을 수반하는 치조음으로, [ɭ]을 경구개에 주조음이 형성되는 경구개음으로 보고 있다.

모음 /ɿ, ɪ, ɨ/나 양순 여린입천장 반모음 /w/ 앞에서 원순음화되어 [ɰ]로 발음되며, 양순 경구개 반모음 [ɥ] 앞에서는 구개음화되고 원순음화되어 [ɰ̟]나 [ɰ̟̟]로 발음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ɰ̟̟], [ɰ̟̟̟], [ɰ̟̟̟̟]를 본고의 논지와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ɰ̟̟], [ɰ̟̟̟], [ɰ̟̟̟̟]는 [ɰ]과 달리 주조음(primary articulation)이 아니고 뒤에 오는 모음의 차이에 따라 입술 모양이 변하는 이차조음(secondary articulation)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한중 대조분석에 필요한 정밀 전사는 아니다.

이상에서 한국어의 /ㄹ/의 설측음 계열 변이음을 살펴보았다. 한국어의 설측음 변이음은 이차조음에 따른 변이음을 제외하면 [l], [ɰ], [ɰ̟] 셋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설측음 [l]은 일반적으로 여린입천장을 상승시켜 비강 통로를 막고 다시 혀끝으로 구강 위쪽의 가운데 부분을 막고 혀의 양 옆으로 폐로부터 나오는 기류를 나오게 하는 음이다. [l]계 설측음은 개인에 따라 치조음으로 발음되기도 하고 치음으로 발음되기도 한다. 또 개인에 따라서는 치음으로 발음되기도 하는데 이때 IPA는 구별 부호 [ ̣ ]를 더하여 [ḷ]로 표기한다. [l]계 설측음을 권설음(retroflex)으로 발음하는 사람들도 드물게 있는데, 권설 설측음은 [ɰ̟̟̟]로 표기한다. 이현복·심소희(1999:67)도 이런 관점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어의 낱말 끝 ㄹ은 혀말이 설측음 [l]로 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말[mal], 굴[ɡul]과 같다.”고 했다.

이상에서 한국어에서 /ㄹ/로 표기되는 발음에 대한 변이음 분석을 하였다. 한국어의 /ㄹ/ 변이음 특징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어 ㄹ 유음 계통의 음소는 하나이지만, 그 변이음은 크게 경타음 계열과 설측음 계열로 나눌 수 있으며, 그들을 정밀 전사했을 때는 [r], [l], [ɰ], [ɰ̟] 네 개로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r]이 출현빈도가 가장 높은 무표적(unmarked) 유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IPA에 나오는 기타 유음인 [r̥], [R], [ɹ], [ɻ], [ɹ̥], [ɹ̥̥], [ɹ̥̥̥] 등은 한국어에서 실현되지 않고 있다.

둘째, [r]계 경타음과 [l]계 설측음은 서로 상보적 분포(complementary distribution) 관계에 있다. 즉, 후자는 음절 끝이나 자음 앞에서 나타나며, 전자는 음절 끝이나 자음 앞이 아닌 음운 환경에서 나타난다. 다만, 서구어에서 온 외래어 발음은 개인적인 차이나 환경에 따라 두 가지로 다 발음되고 있다. 즉, /ㄹ/이 어두에서는 [l]로 발음되는 경우가 없는 순우리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또한 상보적 분포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본고의 변이음 분석은 주조음(primary articulation)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이차조음(secondary articulation)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ㄹ], [ㄹʷ], [ㄹʰ]처럼 IPA의 구별 부호가 붙는 변이음은 뒤에 있을 한중 대조분석에서 제외된다.

### 3. 중국어의 ㄹ 계열 유음 분석

#### 3.1. 한어병음 ‘r’계 유음 분석

한국어의 유음이 하나의 음소로 표기되는 것과 달리 현대중국어의 유음은 두 개의 음소 즉, 한어병음으로 ‘r’과 ‘l’로 표기한다.

먼저 한어병음 ‘r’의 변이음을 분석해보자.

한어병음 ‘r’의 변이음은 크게 두 가지 계열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하나는 [ʐ] 계열이고 다른 하나는 [r] 계열이다.

[ʐ] 계열은 다시 [ʐ]과 [r]로 나눌 수 있다.

[ʐ]은 학자에 따라 권설음(捲舌音, retroflex)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교설음(翹舌音)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음은 혀끝을 들어 올려 잇몸 뒤쪽이나 셴입천장에 닿을라 말라 가까이 가져가 공기를 마찰시켜 혀 옆으로 빠져나오게 하면서 내는 소리이다. 이 음은 또 ‘r sh’와 최소대립쌍(minimal pair)을 이루기도 하는데, 이런 각도에서 보면 ‘r sh’와 ‘r’의 변별자질(distinctive

feature)은 성대의 울림이므로 전자는 무성음이고 후자는 유성음이다. 강식진(1984:32)도 “ɹ[r<sub>ɹ</sub>]: 위의 ʃ와 같은 상태이나 성대의 울림을 수반한 공기를 마찰시켜 내는 소리이다(擦音 有聲音). 한국어나 서구어 등에는 이 음이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1984:32-33)는 또 “이 음은 西歐語의 「r」音과 완전히 다른 음임에 주의해야 한다. 이 음은 말아 올린舌尖과 硬口蓋와의 사이에 발생한 마찰과 성대가 울려 나타나는 捲舌擦音 有聲音인데 비해 佛語 등의 「r」은 小舌顫音(목젖떨음소리 uvula trill)인 [R] 혹은 舌尖顫音(혀끝떨음소리 tongue-point trill)인 [r]이고, 英語의 「r」音(音節 끝의 r 외에)은舌尖과 위 잇몸 사이의 마찰에 의해 일어나는 有聲擦音으로서 ɹ[r<sub>ɹ</sub>]와는 마찰부위도 다르고 마찰성도 훨씬 적다. [ɹ]로 표시하고 흔히 半元音으로 처리하기도 하며 顫音[r]과 混同하여 音標를 쓰기도 한다. ɹ[r<sub>ɹ</sub>]는 顫音이 아닌 마찰음이며 發音部位도 完全히 다르다. 顫音(trilled, rolled)이란 口腔內的 彈性이 많은 부분(雙脣, 舌尖, 小舌)이 진동하여 나는 음인데 漢語에는 古代 現代를 막론하고 없다.”라고 하면서 발음의 유의점을 설명하고 있다. 林燾·王理嘉(1992:62)는 ‘설침-경구개음’, ‘설침후음’, 또는 ‘권설음’으로 부르면서 혀끝을 위로 쳐들어 경구개의 앞부분에 접촉하여 장애를 접촉하여 장애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또 혀끝을 위로 쳐드는 정도에 따라 경구개에 접촉되는 지점도 달라져서 접촉되는 지점이 뒤쪽이면 경구개에는 혀끝의 윗부분이 아닌 혀끝의 뒷부분이 접촉되기도 한다고 하였다.<sup>7)</sup> 그러나 이런 점은 또 다른 변이음을 만드는 요소는 되지 못하므로 본고에서는 부차적인 설명으로 그친다.

[ɹ]의 다른 변이음은 [ɹ̥]이다. 이 음은 접근음(接近音, approximant)으로 혀를 말아 올리는 과정에서 발음 위치와 발음 방식은 [ɹ]과 비슷하지만, 다그기의 정도가 다르다. 아래턱의 조음기관과 위턱의 조음기관이 서로 접근하면서도 폐쇄음이나 마찰음을 형성하지 않으면서 공기가 약간 좁은 틈을 통과하면서 나는 소리이다. 그러므로 마찰음처럼 마찰은 발생하지 않는 소리이다.

7) 원문은 다음과 같다. “舌尖—硬腭音：又稱“舌尖後音”或“捲舌音”。舌尖翹起向硬腭前部接觸形成阻礙。舌尖翹起的程度不同，接觸硬腭的部位也不相同，如果接觸的部位比較靠後，和硬腭接觸的就不是舌尖上部而是舌尖的背面了。…”

현재 현대중국어에서 ‘r’은 [ʐ]보다는 [ʀ]로 더 많이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즉, 예전에는 ‘rsh’와 ‘r’이 최소대립쌍을 이루어 각각 [ʂ]와 [ʐ]로 발음되면서 마찰성이 강하였지만 지금은 그 마찰성이 많이 약화되어 접근음인 [ʀ]로 많이 실현되고 있다.<sup>8)</sup>

한어병음 ‘r’의 또 다른 변이음 하나는 [ʀ]이다. 이 발음도 혀끝을 위쪽으로 말아 올려 발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ʐ], [ʀ]와 변별적인 성향을 띠고 있으므로 권설음이나 교설음으로 귀속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소리는 영어의 ‘r’음과 비슷하지만, 출현하는 언어 환경이 다르다.<sup>9)</sup> 즉, 영어는 ‘red[red]’, ‘car[kɑː]’, ‘cart[kɑːt]’처럼 음절의 어디에나 출현하지만, 중국어는 ‘哪兒[nai]’처럼 음절 끝에서만 나타난다.<sup>10)</sup>

이상에 분석에서 중국어의 ‘r’ 음은 [ʐ] 계열의 변이음 [ʐ]과 [ʀ], [ʀ] 계열의 [ʀ]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두 계열에서 전자는 초성 자음으로만, 후자는 종성에서만 출현하여 서로 상보적 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2. 한어병음 ‘l’계 유음 분석

한어병음의 ‘l’은 IPA로 [l]로 표기하는 유성치조설측음(voiced alveolar lateral) 또는 유성치조설측접근음(voiced alveolar lateral approximant)이다. 이 음은 혀끝을 윗잇몸에 아주 붙이고, 혀 양쪽의 트인 데로 날숨을 흘려 내보내 조음하는 소리이다. 강식진(1984:28)은 “ㄹ[l]: 입 안의 중앙선을 막고 혀의 두 쪽을 열어 공기를 자유로이 통과시켜 내는 소리를 혀옆소리(舌側音

8) 한어병음의 ‘r’음이 [ʐ]보다는 실제로 [ʀ]로 많이 발음되는 이런 현상은 일견 영어 등 서구어와 언어접촉, 주음부호 ㄹ 표기에서 한어병음부호 ‘r’로 바뀐 표기법 변화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보다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9) Peter Roach(2003:22-23): “Retroflexion is found also in vowels - it is often heard in the speech of Americans in vowels where there is an ‘r’ in the spelling, such as ‘car’, ‘more’, ‘bird’.”

10) 편집의 어려움으로 IPA 방식의 성조 표시를 생략한다.

lateral)라고 한다. 이 소리는 혀끝을 윗잇몸에 닿았다가 硬口蓋 쪽으로 살짝 세우면서 울림이 수반된 공기를 혀끝의 양쪽으로 내 보낼 때 생기는 소리로 서(邊音 有聲音) 한국어 ‘달도’, ‘물과’, ‘달리다’의 ‘ㄹ’과 영어의 ‘let’, ‘feel’의 ‘l’과 같은 소리이다.”고 하였다.<sup>11)</sup>

‘兩’은 [lʰiɑŋ] 또는 [liɑŋ]으로 전사할 수는 있겠지만, 중국어에서 [liɑŋ]으로 전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한국어에서는 같은 계열의 음이 변이음 [ɺ]로 표기되기도 하는데 중국어에서는 왜 그렇지 못할까? 이것은 이 소리가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출현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어는 음절 말의 종성에서 나타나므로 입성(入聲)이 되면서 주조음으로 [ɺ]이 구현되지만, 중국어는 음절의 앞부분이 초성에만 나타나므로 주조음 방식으로는 변이음이 형성되지 못하고 이차조음으로만 형성되고 있다. 즉, 주조음의 관점에서 볼 때 한어병음의 ‘l’은 중국어에서는 변이음이 없이 하나의 음소로 실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의 연구 목적에서 볼 때, 주목할 점은 [l]이 표준중국어에서는 음절의 끝에 나타나지 못하고 음절의 앞에서만 출현한다는 것이다.<sup>12)</sup>

#### 4. ㄹ 계열 유음의 한중 대조분석과 CSL 교수·학습에의 적용

##### 4.1. ㄹ 계열 유음의 한중 대조분석

###### (1) 조음 위치와 방식에 따른 대조분석

‘ㄹ’ 계열 유음에서 한국어 음소는 ‘ㄹ’ 하나로 표기하며, 중국어의 음소는 한어병음 ‘r’과 ‘l’ 두 개로 표기한다. 한국어에서는 거의 모든 ‘ㄹ’ 계열 유음

11) ‘달리다’는 [talʰiɰda]로 전사되고, ‘feel’의 ‘l’은 [f]로 전사되므로, 엄밀하면 말하면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2) 이것은 현대중국어의 입성 소실로 인하여 내파음(內破音, implosive)이 없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들 가운데 영어 ‘l’을 ‘엘’로 말하지 않고 ‘에-로’로 읽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이런 중국어의 음운 특징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비변별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중국어에서는 [l]과 [ɭ]이 변별적이다. 그러므로 유음 가운데 한국어의 무표적 음소는 [r]이며, 중국어의 무표적 음소는 [l]과 [ɭ]이라고 할 수 있다.

‘ㄹ’ 계열 유음에서 한국어의 음소 및 변이음은 [r], [l], [ɭ], [ʁ] 네 개이며 모두 비변별적이다.

‘ㄹ’ 계열 유음에서 중국어의 음소 및 변이음은 [ɭ], [ɻ], [ɭ], [l] 네 개이며, [ɭ], [ɻ], [l]은 모두 서로 변별적 음소이다.

이상에서 볼 때 ‘ㄹ’ 계열 유음에서 한국어와 중국어에 공통으로 출현하는 소리는 [l] 하나이다. 그러나 이 음도 출현하는 환경이 서로 다르다. 즉 한국어의 [l]은 기본적으로 종성에서만 출현하며, 중국어의 [l]은 초성에서만 출현한다. 그러므로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화자는 그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쉽지 않다.

## (2) 음운 환경에 따른 대조분석

한국어와 중국어에 공통으로 발음되는 [l]의 음운환경을 살펴보자.

한국어의 [l]은 기본적으로 음절의 끝이나 자음 앞에서 출현하는 내파음(內破音, implosive)이지만, 중국어의 [l]은 기본적으로 외파음(外破音, explosive)이다.<sup>13)</sup>

한국어는 어두에 [l]음이 오지 않는다. 다만, 개인차에 따라 외래어의 어두에서는 [l]음으로 발음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라면[lamjan]이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어두에 오는 유음은 일반적으로 [r]이다. 그것도 주로 외래어의 어두에서 실현된다. 순우리말의 어두는 두음법칙에 의해 모두 /ㄴ/이나 반자

13) 한국어에서는 서구어에서 온 외래어에서 모음 앞에 나타나기도 하여 외파음의 성향을 띠기도 하고, 중국어는 ‘來了’와 같은 음운 환경에서 앞의 ‘l’이 내파음의 성향을 띠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전형적인 경향성을 띠는 것이 아니므로 본고의 관점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explosive’는 ‘plosive’처럼 ‘파열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터뜨림’의 단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여 ‘개방(開放)의 단계를 가지는 파열음’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음 또는 반모음으로 변했다.

이 때문에 한국어 모국어 화자는 중국어 ‘來了’를 [raillə]나 [rairə]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는 어두에 [l]음이 오지 않는다.

한국어의 [r] 계열 소리는 모음 앞에서 출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서구 외래어를 제외하면 음절의 첫소리에 나타나지 않지만, 중국어의 [ʒ], [ʒ] 소리는 음절의 첫소리에서만 출현하며, [ɹ]은 음절의 끝에서만 출현한다.<sup>14)</sup>

한국의 모국어 화자가 중국어의 ㄹ 계열 유음을 배울 때 오류를 범하는 발음을 IPA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人類’의 적확한 중국어 전사는 [ɹəllei], [ɹənlei], [ʒəllei], [ʒənlei] 등인데 한국 학생들은 [rənrei], [rənlei], [rəllei] 등으로 잘못 발음한다. 중국어의 [ʒ], [ʒ], [l] 발음을 배우면서 한국어 모어의 간섭으로 인해 ㄹ 계열 유음의 가장 무표적인 소리 [r]로 발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r’과 ‘l’이 같이 출현하는 어구를 한국 학생들이 잘못 발음하는 경우를 아래에 IPA로 제시한다.<sup>15)</sup>

乐[lə]-热[ɹə] → 乐[rə]-热[rə]

仍然[ɹənɹan], 软弱[ɹuanɹuo] → 仍然[rənran], 软弱[ruanruo]/[ranruo]

流利[liuli], 来了[lailə] → 流利[riuri], 来了[rairə]

热烈[ɹəlie], 人类[ɹənlei] → 热烈[rərie], 人类[rənrei]

来日[laiɹɿ], 龙仁(市)[lɔŋɹən(ʃɿ)] → 来日[rairɿ], 龙仁(市)[roŋrən(ʃɿ)]

老人饶了两人[ləʊɹən ɹəʊlə lianɹən] → 老人饶了两人[raʊrən raʊrə riənɹən]

恋人来了龙仁[liənɹən lailə lɔŋɹən] → 恋人来了龙仁[riənɹən rairə roŋrən]

14) 참고로 영어의 유음은 [ɹ], [l], [ɹ] 등이 있다.

15) 화살표 왼쪽은 옳은 전사이고 오른쪽은 한국 학생들이 틀리게 내는 발음의 정밀 전사이다.

## 4.2. CSL 교수·학습에의 적용

이상에서 ㄹ 계열 유음의 한중 대조분석을 통해 한국어와 중국어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이런 특징을 기초로 한어병음 ‘r’과 ‘l’에 해당하는 중국어 발음을 CSL 교수 및 학습에 적용시키는 원칙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CSL 교수자(教授者)는 한중 음소 및 변이음의 대조분석을 통해 음소와 변이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한국어 모어 화자가 중국어를 배우는 데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수 및 학습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즉, 음소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어에는 ㄹ 계열 유음이 /r/ 하나밖에 없고, 중국어에는 ‘r’, ‘l’ 두 개가 있다. 그러나 외국어를 배울 때는 한 언어의 음운체계 내에서 변별적인 것만 이해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우선 모국어의 음운체계의 지식을 갖추고 해당 음소의 변별적 특징과 변이음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배우고자 하는 해당 언어의 음운체계, 음소의 변별적 자질, 변이음의 특징 등을 이해하여 모국어로 인해 방해되는 요소를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관련 지식을 유효적절하게 적용하여 교수하고 학습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어 음소는 /r/ 하나이지만, 변이음은 [r], [l], [ɭ], [ʎ] 등이 있음을 이해하고 이들의 조음 위치, 조음 방식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하며, 중국어 음소는 /r/과 /l/ 두 개이지만, 변이음은 [ɹ], [ɻ], [ɻ], [l] 등이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또 변이음을 구분해내는 과정에서는 중국어의 교수 및 학습을 위해 필요한 변이음만 걸러내어 다루는 것이 필요하므로 주조음, 이차조음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이상의 내용은 학습자보다 교수자가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보면 ‘人’을 발음할 때 처음 배우는 한국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ʎən]이나 [ɻən]으로 발음하지 않고 [rən]으로 발음하는데 이것은 한국어 /ㄹ/의 무표적 발음이 [r]이기 때문이다.

둘째, 소리가 출현하는 한중 언어의 음운 환경의 차이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이해해야 하며 이를 다시 교수 및 학습에 적용시켜야 한다. 위의 분석에서

밝혔듯이,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비슷하게 발음되는 ㄹ 계열 유음은 [l]이 유일하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발음되는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來’와 같은 발음을 배울 때 대부분의 한국학생들은 [lai]가 아닌 [rai]로 잘못 발음한다. 이것은 한국어에서는 [l]이 주로 음절 끝인 종성에서 나타나고, 중국어는 음절의 시작 부분인 초성에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셋째,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면 안 되므로, 한중 음운체계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히, 성조와 같이 연습하여야 한다. 표준한국어는 소리의 높낮이가 변별적 자질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 모음이 단모음 위주로 짧게 발음된다. 그러나 중국어는 소리의 높낮이가 의미를 구분해주는 중요한 변별자질이다. 그리고 이런 소리의 높낮이는 기본적으로 모음을 중심으로 한 성대의 울림 유무로 구현된다. 이런 소리의 높낮이를 담보하려면 울림의 길이를 담보해주어야 하므로 중국어는 이중모음이 발달되어 있으며 단모음도 길게 발음하는 습관이 있다. /ㄹ/ 계열 유음을 학습할 때도 이런 한중 음운체계의 특징을 염두에 두고 종합적으로 연습하여야 한다.

넷째, ‘孰能生巧’의 학습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이상의 한중 음소, 변이음에 관한 음운론 및 음성학 등 이론적 지식을 배경으로 정확하게 반복 연습하여 숙달시켜야 한다. 처음 배울 때는 모두 어렵게 느껴지지만 많이 반복한 날말일수록 자신 있게 발음할 수 있듯이 이론도 중요하지만 이런 이론이 결과를 낳으려면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효율적인 교수 및 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런 지식 없이 맹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관련 지식을 갖추고 이를 이해하고 적용시켜 숙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5. 결론

이상으로 한중의 ㄹ 계열의 유음을 대조분석하고, 이를 중국어 교수 및 학습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언어 \ 변이음	[r]	[l]		[l]	[ʌ]	[z]	[ɹ]	[ɻ]
		초성	중성					
한국어	+	-	+	+	+	-	-	-
중국어	-	+	-	-	-	+	+	+

첫째, ㄹ 계열 유음에서 한국어의 변이음은 [r], [l], [l], [ʌ]이고 중국어의 변이음은 [z], [ɹ], [ɻ], [l]이다. 변이음의 출현 조건을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한국어:

/r/ → [r]/모음\_모음; 모음\_반모음; 모음\_ㅎ;  
 [l]/\_#<sup>16)</sup>; \_자음(‘ㄹ’ 제외)+모음; \_ㄹ(‘ ’ 모음 계열 제외);  
 [l]/\_#;  
 [ʌ]/\_ㄹ(‘ ’ 모음 계열);

중국어:

/ɹ/ → [z] or [ɹ]/#\_;  
 /l/ → [l]/#\_;  
 /ɻ/ → [ɻ]/\_#;

둘째,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비슷하게 발음되는 소리는 [l] 하나이다. 그러나 이것도 출현하는 음운 환경을 따지면 서로 다르다. 한국어는 음절 끝에서만 출현하며, 중국어는 음절 시작 부분에서만 출현한다.

셋째, 중국어 교수 및 학습 방안은 한중 ㄹ 계열 유음의 음소, 음성, 변이음의 특징 및 발음 자리, 방법, 출현 환경을 이해하고 한국어 모어 입장에서 장 단점을 파악하여 이를 중국어 학습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런 이론적 지식 위에 반복적 실천을 더하여 ‘熟能生巧’의 단계로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6) ‘\_’은 그 소리가 출현하는 위치를 나타내고, ‘#’은 음절의 경계를 나타낸다.

### 參考文獻

- 康寔鎭, 『中國語新解』, 釜山: 釜山大學校出版部, 1984.
- 김진우, 『언어-그 이론과 응용』, 서울: 탑출판사, 1985.
- 徐世榮, 『普通話語音常識』, 北京: 語文出版社, 1999.
- 薛鳳生, 『國語音系解析』, 臺北: 學生書局, 1986.
- 吳宗濟, 『現代漢語語音概要』, 北京: 華語教學出版社, 1992.
- 이현복·심소희 편역, 『중국어 음성학』, 서울: 교육과학사, 1999.
- 이호영, 『국어음성학』, 서울: 태학사, 1996.
- 林燾·王理嘉 等, 『北京語音實驗錄』,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85.
- 林燾·王理嘉, 『語音學教程』,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2.
- 전광진, 「중국어 자음의 한글 표기법에 대한 음성학적 대비 분석」, 『중국문학연구』(한국중문학회)제19집, 1999. 12, 347-376쪽.
- 鄭錦奎 著, 엄익상 역, 『현대북경어 생성음운론』, 서울: 학고방, 1996.
- 周有光, 『漢語拼音方案基礎知識』, 北京: 語文出版社, 1995.
- 허웅, 『국어음운학(중판)』, 서울: 샘문화사, 1990.
- Peter Ladefoged, 『A Course in Phonetics』, N. Y.,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1975.
- Peter Roach, 『Phonetics』, 上海, 上海外語教育出版社, 2003.

<Abstract>

A contrastive analysis on liquids in Korean & Chinese and its teaching strategies

Chang Hodeug

This article covers a contrastive analysis on liquids in Korean and Chinese, and then explores its teaching strateg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L.	allophones	[r]	[l]		[l]	[ʎ]	[z]	[ɹ]	[ɹ]
			/initial	/final					
	Korean	+	-	+	+	+	-	-	-
	Chinese	-	+	-	-	-	+	+	+

Firstly, there are four allophones in Korean liquids, such as [r], [l], [l], [ʎ] and four allophones in Chinese liquids, such as [z], [ɹ], [ɹ], [l].

Secondly, the [l] is a same sound in Korean and Chinese liquids, but the [l] of Korean liquids only occurs in ending constants, whereas Chinese liquids only occurs in intial constants.

Thirdly, teaching strategies are to understand characteristics of phonemes, allophones, places of articulation, manners of articulation, and then are to practice English speaking and listening skills in Chinese liquids.

Key Words : contrastive analysis, liquids, Approximants, Laterals, Taps, teaching strategies

투 고 일 : 2013. 1. 10. / 심 사 일 : 2013. 1. 20. ~ 2013. 2. 10. / 게재확정일 : 2013. 2. 17.